

[기획논문]

## 충남 대전지역 문학공간 연구

최수웅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 차 례

- |                     |                       |
|---------------------|-----------------------|
| 1. 서론               | 3. 유랑과 정착, 경계와 소통의 공간 |
| 2. 충청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공간 | 4. 결론                 |

### 1. 서론

최근 들어 문학공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확산되고 있다. 문학작품의 배경·상징·구조적인 측면에서 공간의 문제에 주목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문학답사를 비롯한 각종 교육적 측면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은 문학공간에 대한 연구는 문학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답사활동을 통해 연구결과를 실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문학공간 답사는 교육적 측면과 문화산업적 측면 모두에서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방법은 지역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창작방법론의 측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sup>2)</sup>

이 논문은 이러한 연구방향의 한 방법으로서 대전 지역의 문학공간을 다루

고자 한다. 대전은 명실상부한 충청 지역의 문화·경제·산업 중심지로 한국 문학공간 연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영향력은 인근한 충청남도 논산·공주·연기를 비롯하여, 충청북도의 청원·보은·옥천·영동 등의 지역까지 두루 미친다. 특히 금산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실생활에 있어서는 대전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이다. 이처럼 대전은 우리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교통의 발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처럼 교통이 발달했다는 사실은 토착적인 문화가 발생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상과 같은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면 대전과 금산의 문학공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 2. 충청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공간

대전의 문학공간적 특징은 무엇보다 충청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공간으로는 보문산 사정공원, 어남동 도리미마을,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등이 해당하는데, 각 지역별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1) 문학작품에 내재한 공간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저술이 있다. 장일구의 「한국 근대소설의 공간성 연구」(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8), 김수복의 『상징의 숲』(청동거울, 1999), 박태일의 『한국 근대시의 공간과 장소』(소명출판, 1999), 한국소설학회에서 편찬한 『공간의 시학』(예림기획, 2002), 최유찬 외 여러 저자의 『토지의 문화지형학』(소명출판, 2004), 김수복이 편저한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청동거울, 2005).
- 문학답사와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저술이 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의 『한국문학지도』(계몽사, 1996), 이종근의 『전북문학기행』(신아출판사, 1997), 이대규의 『남도문학기행』(이와문화사, 1999), 장태동의 『서울문학기행』(미래M&B, 2001), 김재관·장두식의 『문학 속의 서울』(생각의나무, 2000).
- 이러한 연구방법을 종합한 것으로 단국대학교 부설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 현대문학지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실용화 방안 연구〉가 있다. 2004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총 3년에 걸쳐 진행된 이 연구는, 각 행정지역 단위 별로 대상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해당 작가와 작품을 망라한 문학지형도(文學地形圖)를 작성했다. 특히 이 연구는 작가와 작품을 유기적으로 연구했으며, 각 지역을 직접 답사하여 수집한 이미지자료들을 충실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2) 최수웅, 「경상북도 문학공간 연구의 단위지역 구분」, 《한국문화기술》 제1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05, p.48.

## 1) 보문산 사정공원

대전은 충청 지역의 경제·산업의 중심지이자 문화의 중심지이다. 지역적 영향력은 논산·공주·연기·금산 등의 충청남도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청원·보은·옥천·영동 등의 지역까지 두루 미친다. 이런 이유로 대전에는 이곳과 별다른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청 지역을 대표하는 문인들에 대한 기념물이 많이 남아 있다. 대전의 주봉(主峰)이라고 할 수 있는 보문산 사정공원에 건립되어 있는 한용운·김관식·박용래 등의 시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용운(韓龍雲)은 대전 지역과 특별한 연관이 없으나,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문인이기에 이곳에 시비가 건립되었다. 그는 홍성의 결성면(結成面) 성곡리(城谷里) 491번지 박철동(縛鐵洞)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강원도 백담사에서 수행했다. 그러므로 그의 문학세계에는 이 두 지역이 집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지역들에서는 한용운을 기념하는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홍성에는 생가와 사당이 조성되어 있고, 백담사 인근에는 만해마을이 건립되어 있다.

그러나 대전은 이러한 문학공간적 특징과 연결되지 않는다. 다만 보문 로터리 회원들이 시비의 뒷면에 밝혀놓은 “거룩한 정신을 기리고, 그 높은 뜻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간절한 정성을 모아 이 시비를 세운다”라는 건립의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한용운에 대한 흥미가 동인(動因)으로 작용했을 뿐이다. 화강석과 오석으로 제작된 시비에는 「꿈이라면」이 새겨져 있는데, 이 작품 역시 “불교적 사고의 밑바탕 위에 좌절의 시대에 희망과 기다림으로 그의 시를 형성화하여 새로운 역사적 전망을 제시하였던 것”<sup>3)</sup>이라는 한용운 시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사랑의 속박이 꿈이라면

3) 최동호, 『한용운-혁명적 의미와 시적 사랑』, 건국대출판부, 1996, pp.48~49.

출세의 해탈(解脫)도 꿈입니다  
웃음과 눈물이 꿈이라면  
무심(無心)의 광명도 꿈입니다  
일체만법(一切萬法)이 꿈이라면  
사랑의 꿈에서 불멸을 얻겠습니다

—한용운, 「꿈이라면」 전문

김관식(金冠植)도 대전과 특별한 연관은 없으나, 역시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문인이기에 시비가 건립되었다. 그의 시비는 연꽃과 북의 형상을 따서 구성되어 있는데, 앞면에는 그의 대표작 「다시 광야에」가 새겨져 있으며, 뒷면에는 시인 조남익이 “김관식 시인은 온몸으로 시를 썼다. 맑고 어린 한국적 서정시를 동양 정신의 미학으로 승화시켰고, 남다른 기행과 호쾌한 기개는 세인의 화제를 일신에 모으기도 했다”라고 쓴 건립 내용이 새겨져 있다.

김관식은 논산에서 태어나 강경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학교의 교정에도 그의 작품을 기리는 시비가 건립되어 있다. 또한 그는 1950년대에 명동거리를 누비면서, 전쟁 직후의 암울한 현실을 뛰어넘는 여러 기행(奇行)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처럼 그의 작품세계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곳은 논산의 강경과 서울의 명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의 시에 대한 애정은 장소를 뛰어넘어 대전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시비에 새겨진 작품 「다시 광야에」는 절대자인 ‘하늘’에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기를 기원하는 내용인데, 여타의 시에서처럼 자신을 낮춰 절대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생전에 작가가 보였던 오만불손하기까지 했다는 태도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그의 호쾌한 기개가 잘 표현되어 있다. 작품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저는 항상 꽃잎처럼 겹겹이 에워싸인 마음의 푸른 창문을 열어놓고  
당신의 그림자가 어리울 때까지를 가슴 조여 안타까웁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그러면 저의 옆에 가까이 와 주십시오.

만일이라도…… 만일이라도……

이승 저승 어리중간 아니면 어데든지 당신이 계시지 않을 양이면

살아 있는 모든 것의 몸뚱어리는

암소 황소 쟁기결이 날카론 보습으로

갈아 헤친 논이랑의 흙덩어리와 같습니다.

따순 봄날 재양한 햇살 아래

눈 비비며 싹터 오르는 갈대순같이

그렇게 소생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김관식, 「다시 광야에」 전문

박용래(朴龍來)는 앞서 살펴본 한용운이나 김관식과는 다소 입장이 다르다. 그는 논산의 강경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대전과 인연을 맺고 있다. 강경 상업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1943년부터 조선은행 서울 본점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향토적인 정서를 마음속에 가득 품고 있는 시인에게 서울 생활은 쉽게 적응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작가는 “서울은 단순하게만 자란, 그래도 조금은 행복한 나에게 처음으로 고독을 알게 했다. 달개비의 보랏빛이 그림고 황토빛이 그리웠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는데, 결국 그는 이듬해인 1944년에 새로 개설된 지방 지점으로 근무지를 옮겨달라고 신청한다. 그 지방 지점이 바로 조선은행 대전지점이었으며, 그렇게 해서 그는 대전과 인연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해방이 된 1946년부터 박용래는 호서중학교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여기서의 경험은 그의 시작 활동에 중요한 전개를 제공한다. 그는 인근의 계룡산과 부여 일대에 산재한 백제 유적을 답사하면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문학에 뜻을 둔 여러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이들과 ‘동백시인회’를 조직하고 동인지 《동백》을 펴내기도 했는데, 그와 함

게 활동했던 문인들은 정훈·이재복·박희선·하유상·윤영한·정해봉·송석홍 등이었다. 이 동인지는 대전·충청 지역의 지역 문단 형성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 「박용래 약전」을 쓴 소설가 이문구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동인지 《동백》은 1년에 서너 차례씩 동인들의 주머니 형편에 맞추어 간행되었다. 타블로이드 크기의 석판 인쇄로 첫선을 보였던 《동백》은 5페이지 안팎의 오죽잖은 주체꼴이었고, 그나마도 선풍이 펴이지 않아 나중에는 골필로 감작거린 프린트 판으로까지 전락을 하게 되지만, 그곳에 발표되는 작품들은 기성문단의 주목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아, 청록파의 삼가시인(三家詩人)으로 이미 부동의 존재였던 경주의 박목월 씨 같은 이는 자신이 주재하던 동인지 《죽순(竹筍)》을 번번이 기증하여 《동백》지의 증정본에 일일이 답례를 해올 정도였다. 박 시인이 평생을 두고 선배로 대우했던 박목월 씨와의 왕래도 그 내력은 이로써 비롯된 것이었다.

《동백》과 때를 함께 했던 그의 습작 시절이, 농촌으로 밀려나는 전통적인 민중의 애환과 토속적인 정서의 현장인 황토 위에 삶의 뿌리를 내릴 무렵이었음은, 박시인의 시세계가 한 생애에 걸쳐 일관된 주조(主調)의 독특한 경지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믿음직한 주석이 아닐 수 없었다. 그것은 ‘글이 곧 사람’이라는 고전적인 예증의 또 다른 물증이었다.<sup>4)</sup>

이후 그는 대전의 보문중학교·철도학교·한밭중학교·대전북중학교 등에서 근무하면서, 대전과의 인연을 이어가면서 이 지역의 문학적 전통을 표현한 시 작품을 발표했다. 1980년 11월 심장마비로 별세한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후배 문인들이 정성을 모아 1984년 10월 27일에 시비가 건립되었다. 이 시비는 대전 지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시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시비에 새겨진 작품은 박용래의 대표작 「저녁 눈」이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붉비다

1) 이문구, 「박용래 약전」, 박용래, 『먼 바다』, 창작과비평사, 1984, p.248.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발굽 밑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여물 썬 소리에 봄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봄비다.

—박용래, 「저녁 눈」 전문

## 2) 어남동 도리미마을

대전 중구 어남동 도리미마을에는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 선생의 생가가 복원되어 있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8살 무렵에 청원의 고두미마을로 이사하여 자랐다.<sup>5)</sup> 그러므로 이곳은 그의 문학세계를 구성하는 본격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원천지역(源泉地域)으로써의 가치를 가진다.

이곳이 지금처럼 복원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88년에 생가지 유허비가 세워졌으며, 1992년 여름에는 생가지 발굴조사가 있었는데 이때 조사된 내용과 주민들의 고증을 토대로 해서, 1993년에 복원작업이 이루어졌다. 총 3,827평 면적의 대지에 건립된 생가는 14평의 아담한 초가집으로 되어 있는데, 안채 안방문 위에는 '단재정사(丹齋精舍)'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이름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정사'는 학문을 가르치려고 지은 집, 정신을 수양하는 곳, 혹은 스님이 불도(佛道)를 닦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채호가 이곳에서 살았던 무렵에는 겨우 일곱 살짜리 꼬마에 불과했으며, 후대 사람들에게 단재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교육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 역시 이치에

---

5) 신채호의 가족이 대전의 도리미마을을 떠나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로 이사하게 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경제사정이 주요한 원인이었으리라고 판단된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사대부였지만, 할아버지가 벼슬길에서 물러나 사골에 은거하며 사숙을 꾸렸고, (아버지도 병약하여 벼슬길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생활을 했다.) 신채호는 고두미마을에서 여섯 살 무렵부터 할아버지에게 한학을 배우기 시작했으며, 『수호전』이나 『삼국지연의』 등과 같은 고전 소설에 심취했는데, 이러한 유년기 체험이 그의 문학세계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맞지 않는다. 이러한 잘못된 명칭의 사용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복원된 생가 옆 광장에는 신채호 동상이 건립되어 있다. 청주 예술의 전당에 건립된 동상보다 한 달 먼저 제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생가지를 비롯한 동상 주변의 어디에도 신채호의 생애나 문학사상과 관련된 콘텐츠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생가를 복원하고 동상을 건립하는 외형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와 함께 그러한 문화유산의 의미를 교육하고 전파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3)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우리의 현대문학은 기형적일 정도로 중앙 집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물론 한국전쟁 당시의 부산·경남 지역에 형성되었던 피난문학의 예도 있으나, 이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에도 경상 지역의 문단·호남 지역의 문단 등이 형성되어 있으나, 중앙과 비교할 때 그 영향력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장기적으로 우리 문학의 토양을 협소하게 만들고, 각 지역에 산재한 문학공간들을 오로지 유년기 체험으로 한정시켜 버릴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 문학의 균형 감각을 회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각 지역 문단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전을 중심으로 한 충청 지역의 현대문학은 독자적인 문단을 형성하며 발전하여 왔다.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에 창간된 잡지 《향토(鄉土)》가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불교종합지 《백상(白象)》도 문학작품과 평론을 많이 게재했다. 이와 같은 전통은 1946년 2월에 창간된 동인지 《동백》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공주에서 간행되었던 《과수원(果樹園)》, 《백수(白樹)》 동인과 함께 충청남도의 지역 문단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8월에 창간된 동인지 《호서문학(湖西文學)》은 앞서 간행된 지역 동인지들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었다. 동인으로 참가했던 작가들의 면면도 그러하거니와 “향토문화, 전통문화의 재발견 및 그 가치 진



작”, “지방의 문학적 자각과 자율성 추구” 등을 기치로 내세웠다는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6)</sup> 또한 작품 수록 범위에 있어서도 시·소설·시나리오·아동문학 등 문학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지였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당시의 충청남도 문단을 망라한 대표 문예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3년 무렵부터, 지역 문학만을 고수했던 정훈, 원영한, 정해봉 등과 서울 중심의 문단에 등단하여 활동했던 권선근, 한성기, 임희재 등 이른바 ‘등단파’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분열로 인해 1955년에는 기존 《호서문학》 동인 중 일부가 탈퇴하여, 〈한국문학가협회〉충남지부를 결성하고 1956년 3월 독자적인 동인지인 《호서문단(湖西文壇)》을 발행했다.<sup>7)</sup>

이러한 갈등은 한국문인협회 충남지부에서 발간한 《충남문학》을 통해 해소된다. 이 문학지는 1970년에 창간되었지만, 그 제호를 ‘제6호’라고 했다. 이는 그 동안 4회에 걸쳐 발간되었던 《호서문학》과 1회에 걸쳐 발간된 《호서문단》의 전통을 모두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던 것이다. 이처럼 《충남문학》은 “당시 연락되는 문인 모두가 참여한 최대 종합문예지이며 60년대 문단이 분열된 이후 최초로 한자리에 모이는 총화적 의미”<sup>8)</sup>를 가지며, 이를 통해 충청남도 지역 문학의 통합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후 충청남도에는 각 지역별, 세대별로 문학동인 활동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많은 작가들이 배출되었다. 이들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전과 충청 지역의 문학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 3. 유랑과 정착, 경계와 소통의 공간

대전의 문학공간이 가진 또 다른 특징은 ‘경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철도 교통의 발달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근대적인 철도 교통의 발달은 우리 국토의 여러 지역에서 사회 및 문화구조의 개편을 가져왔다. 충

6) 송백현, 「충남시단사」, 『진실과 허구』, 민음사, 1989, p.402.

7) 박명용, 『문학과 삶의 언어』, 푸른사상, 2002, pp.66~68.; pp.80~82. 참고.

8) 송백현, 앞의 글, p.411.

청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충청남도 논산의 강경포구와 충청북도 충주의 목계장터가 몰락하게 된 원인이 바로 철도 교통의 발달이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천안과 조치원 등의 지역은 철도 교통의 발달로 인해 지역 경제의 부흥이 이루어졌다. 이는 대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한밭마을을 통과하면서부터 이 일대가 확장되기 시작했다.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아 회덕군청이 회덕에서 한밭으로 옮겨왔을 정도로 성장했으며, 1913년 한밭을 기점으로 하는 호남선 철도가 완공된 후에는 더욱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부터 대전은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되었고,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면서 시가지가 발달하게 된다. 1932년에는 공주에 있던 충청남도 도청이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어 도시의 성장이 가속화된다. 또한 한국전쟁 때 피난길에 대전을 지나던 사람들이 그대로 눌러 살면서 다시 한 번 인구가 급증했고, 1980년대에 유성 일원과 진잠·회덕 일부, 대덕군 일원이 편입되는 등 근대 이후 대전은 꾸준한 확장을 계속해 왔다. 이처럼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전 시내에서 독창적인 역사적·지역적 특색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그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스쳐지나가는 공간이 되었던 것이다.<sup>9)</sup>)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그대로 지역적 특징으로 정착되었는데, 이에 영향을 받아 대전 지역의 주요 문학공간들은 주로 인근 지역과의 경계에 위치하게 된다. 이후 살피게 될 머들령고개의 정훈 시비나 신탄진의 이덕영 시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이와는 반대의 경우, 즉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대전에 정착하게 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문화동 연정국악문화회관 광장에 시비가 건립된 한성기와 자신이 살고 있는 도마동 일대를 시로 형상화하고 있는 김완하 등이 그러한 예이다.

## 1) 만인산 머들령고개

정훈(丁薰)은 앞서 설명했던 대전·충남 지역의 대표적인 문학잡지 《향토》

9)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충북』 제12권, 돌베개, 1998, p.224. 참고.

와 《동백》, 그리고 《호서문학》의 창간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1911년 논산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휘문고등학교와 일본의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서 수학했다. 1938년 동인지 《자오선(子午線)》을 통해 문단활동을 시작했는데, “이 고장 출신치고 그의 문하를 드나들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sup>10)</sup>라고 평가받을 만큼 평생을 대전·충청 지역 문학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그의 시비는 대전에서 금산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만인산 머들령고개에 세워져 있다. 여기에는 그의 대표작 「머들령」이 새겨져 있다. ‘머들령’은 ‘마달령(馬達嶺)’의 속명으로, 1949년 3월에 대전 계림사에서 발간된 그의 첫 시집 제명이자, 그의 대표작 제목이기도 하다. 시 「머들령」은 시인이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이곳을 두 번째로 넘으면서,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고개를 지났던 추억을 노래한 내용으로,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용강원을 지나

머들령

옛일이 길로 원님이 나리고

등짐장사 쉬어 넘고

도적이 목 지키던 곳

분홍 두루막에 남빛 돌떠 두르고

할아버지와 이 재를 넘었다

빠꾸기 작고 우든 날

감장 개명화에 발이 부르트고

파랑 갑시댕기

손에 감고 올랐드니

10) 송백현, 앞의 글, p.405.

홀려간 서른 해  
유월 하늘에 슬픔이 어련다

—정훈, 「머들령」 전문

머들령고개를 넘어가면 금산이다. 금산은 충청과 전라 지역의 여러 도시들의 영향권에 들었다가 독립하기를 반복했던 지역이다. 신라가 세력을 확장했던 시기에는 지금의 논산에 해당하는 황산군(黃山郡)에 속했다가 고려시대에 독립했고, 다시 조선시대에는 공주에 속했다가, 일제강점기에 독립하여 전라북도 관할로 넘어갔고, 1963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충청남도로 편입되었다. 이처럼 금산은 여러 행정구역을 오갔는데, 현재는 독립된 지역을 이루지만 여전히 대도시인 대전의 영향권에 속해 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징으로 인해, 금산을 무대로 하는 작품은 드물고, 금산 출신이면서 고향을 다룬 작가도 드물며, 고향에서 태어나 그곳을 지키고 있는 작가는 더욱 드물다. 1959년 금산읍 중도리에서 태어난 시인 임영봉은 금산을 지키는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금산에서 자랐고, 대학은 머들령고개를 넘어 대전에서 마쳤다. 199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갯바위섬 등대」가 당선되어 등단했는데, 이 작품은 “심원한 상상력의 깊이와 언어를 다루는 감수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고향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현재에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인이니 성급한 평가는 내릴 수 없으나, 특히 「솔숲에 들며」와 같은 작품에서 파악되는 생태주의적 관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앞산의 솔숲에 산책을 나갔다가 자신이 소나무가 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확장된다. 이와 같은 인식의 확장을 통해 개인적 정서의 사회적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더는 없이 햇살이 맑아서  
끝없이 정다운 날에는 팔짱을 끼고  
우리 모두는 솔숲에 드는 거다

(……)

얼싸안고 어우러지는 뿌리를 보아라

물도 깊어가야 사랑 되는 것을

술숯에 들어 배운다

—임영봉, 「술숯에 들며」 일부

김숨의 소설 「투견(鬪犬)」에도 금산이 공간배경으로 제시된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여자는 유배를 당하기라도 한 것처럼 산 속에 있는 집을 벗어나지 못한다. 간질을 앓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있어 '세상 구경'이란 "구불구불한 산길을 내려와 십 분 정도 달리면" 나오는 금산 시내에 다녀오는 것이 고작이다. 그녀는 갈 때마다 변해 있는 시내의 모습을 신기해하지만, 집을 나와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는 않는다.

금산여중에 사 개월 정도 다니다가 중퇴한 이후로 나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다. 아빠와 아빠가 데리고 온 여자들, 그리고 영식만이 유일하게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였다. 문득문득, 나는 아빠가 두렵다. 한순간 화약처럼 붉은 불꽃을 일으키며 심장이 폭발해버릴 것만 같다. 아빠가 데리고 오는 여자들도 두렵기만 하다. 그녀들이 내 목을 조르거나 내 밥에 독을 타는 꿈을 꾸곤 한다. 그리고 꿈속에서 종종 그녀들은 산과가 되어 내 아기를 받아내기도 한다. 그리고 영식……

—김숨, 「투견」 일부

그녀는 세상이 두렵다. 그리고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아버지도 두렵다. “금산 바닥에서 주먹깨나” 썼던 아버지는 기르던 투견에게 물린 뒤로는 개를 도살하는 일을 시작했다. 정작 자신을 물었던 개는 죽이지 않은 채, “다른 개들이 감나무에 목이 매달린 채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게” 만들고서,

아버지는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 대상은 주로 이십 년 전 “대전역 뒷골목 중앙시장”에서 데려온 영식이다. 아버지가 화자를 데리고 금산 시내

에 다녀오던 날, 영식은 투건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그리고 충청남도 일대의 투건 도박장을 떠돌았다. 예전에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정신분석학적 상징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이 작품을 통해 작가는, 금산 시내 인근의 산골을 본능적인 폭력과 죽음, 성장과 성(性)에 대한 공포가 중첩되는 공간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그 역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인접한 대전 및 충남 전역에 산재된 투건 불법 도박장들로 확장되면서 상징성이 강조된다.

## 2) 신탄진 미호동

신탄진 미호동 대청댐 수문이 보이는 곳에 이덕영의 시비가 있다. 그는 1942년 대전 서구 기성동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서라벌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1963년에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여 문단에 진출했다.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언어로 전통적 서정시의 세계를 추구하여, 박용래의 시풍을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집으로는 1976년에 출간된 『한 줄기의 연기』가 있다. 그러나 1983년 11월 10일 지병이던 간경화증으로 인해 41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를 기억했던 지역 문인들이 정성을 모아 1995년에 시비를 세웠는데, 여기에는 그의 대표작 「신탄진」이 새겨져 있으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강(江)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강가에 가득한 밀밭 위로  
 바람이 넘치고 있었다  
 흰 모래톱에 던지는 돌팔매  
 하늘 위의 몇 마리 새들과  
 무심한 물결이  
 빈 가슴에 들어와  
 어둠을 허물고 있었다  
 키 큰 밀밭 사이로

지난 밤의 하늬는 불면이  
구름처럼 사라져 가는 것이  
보였다.

—이덕영, 「신탄진」 전문

또한 대청댐 잔디광장에는 불교시인 김대현의 시비도 건립되어 있다. 그는 제주에서 태어나 1945년 대전에 정착한 이후 교육사업과 사회 복지사업에 전력했으며, 10여 권의 시집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의 시적 특징은 불교 서사시를 창작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불교와 한국의 전통적인 서정을 융합한 세계를 섬세하고 온전하게 표현한 시인”<sup>11)</sup>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호서문화회에서 2004년에 건립한 시비에는 「강」이라는 짧은 작품이 새겨져 있는데, 그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하늘이 와서 쉬나니  
강물이 어이 자라오

—김대현, 「강」 전문

### 3) 연정국악문화회관

앞서 살펴보았던 정훈과 이덕영의 시비가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자들의 공간을 표현했다면, 대전 시내 한복판 연정국악문화회관 앞에 세워져 있는 한성기의 시비와 김완하의 시편에 표현된 다가동 일대 등은 다른 측면에서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

한성기는 대전 출신이 아니고, 충청 출신도 아니다. 그는 1923년 함경남도 정평군 광덕면 장동리에서 태어나 자랐다. 이후 1937년에 함흥사범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에게 있어 충청 지역은 아무런 인연이 없는 고장이었다. 그

11) 박명용, 앞의 책, p.71.

러나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면의 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으면서, 한성기와 충청 지역의 인연은 시작된다. 1947년에는 대전사범학교 교사로 부임하고, 여기에 근무하던 시기에 모윤숙과 박두진의 추천을 받아 시인으로 등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1959년부터 1963년까지 신경쇠약으로 경상북도 금릉군 어모면 소재 용문산 기도원에 들어가 투병생활을 했는데, 기도원을 나온 이후 충청북도 영동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예산·연기·대전 유성·서산·논산 등을 떠돌다가, 1979년에야 다시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정착하게 된다. 이 와중에도 꾸준하게 작품을 발표하여 첫 시집 『산에서』를 비롯하여 총 5권의 시집과 1권의 시선집을 간행했다. 1982년에는 제1회 조연현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1984년 4월에 뇌일혈로 타계하여 대전 동구 직동리에 묻혔다.

이와 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작품에는 실향민으로 느꼈던 혈육과의 이별이나 고향에 대한 향수 등이 표현되었으며, 잦은 이사로 인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떠돌이 의식이 표출되기도 했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가 주로 고독한 감성을 토로하고 있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시비에 새겨진 작품 「역(驛)」도 그러한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작품인데, 이 작품은 “시인의 고독한 자화상인 동시에 <50년대>라는 사회적 특수성(시대상)이 잘 융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보편적 내면세계의 일면을 시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자화상”<sup>12)</sup>이라고 평가된다.

푸른 불 스그닐이 꿈처럼 어리는  
거기 조그마한 역이 있다.

빈 대합실에는  
의지할 의자 하나 없고  
이따금  
급행열차가 어지럽게 경적을 울리며

12) 정진석, 「한성기의 불행한 생애와 고녀의 시세계」, 박명용 편, 『한성기시집』, 푸른사상, 2003, p.330.



지나간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아득한 선로 위에

없는 듯 있는 듯

거기 조그마한 역처럼 내가 있다.

—한성기, 「역」 전문

한성기의 시가 끝내 정착하지 못한 떠돌이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김완하의 시는 정착을 갈망하는 사람의 심정을 다루고 있다. 아직 활발하게 창작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작가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의 초기 작품들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차가움과 따뜻함, 상승과 하강이라는 이항 대립적인 구조가 한 편의 시 속에 같은 뿌리를 지닌 채 공존”<sup>13)</sup>하고 있다는 지적은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작품 경향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별’과 ‘도마동’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연작시편의 제목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별’의 상징성은 김완하의 첫 시집 『길은 마을에 닿는다』에서 중점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이 시집에서 “허리가 휘어 언덕을 오르는”(「별 · 1」) 고단한 삶을 위무하는 존재, 혹은 “진실을 향한 고통”(「별 · 3」) 등에 대한 상징으로 ‘별’의 이미지를 활용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것은

새벽이면 모두 제 빛을 거두어

지상의 가장 낮은 골목으로

높기 때문이다

—김완하, 「별 · 1」 일부

13) 한상철, 「무늬에 이르는 힘」, 《문예시학》 제8권, 1997, p.411.

지상에서의 삶을 영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은 닿을 수 없는 존재일 뿐이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 둘의 합일을 소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새벽'이라는 시간에 주목한다. 별들이 지상 가까이 내려오는 새벽이야말로 시인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은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아직 자연과의 일체감을 느낄 수 있던 어린 시절에는 손만 내밀면 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성인이 되어버린 지금은 그럴 수 없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대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김완하가 제시한 '별'은 유년시절의 순수성, 고향, 그리고 어머니와도 연결된다.

지금 우물은 자취 없이 사라지고 말았는데, 싱싱한 꿈 길어 올릴 두레박줄 내릴 곳 없는데, 이제는 그곳에 서보아도 뒷산 솔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나의 저 어린 시절 어머니의 흰 고무신이 빛나던 저녁, 우리 집 우물에서 솟아나던 별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김완하, 「별들의 고향」 일부

이제 시인은 소유할 수 없는 별을 소망하기보다, 지상에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별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도마동'이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도마동은 김완하가 가정을 이뤄 정착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는 곳이다. '도마동'을 제목으로 달고 있는 시편들은 첫 시집에서도 발견되지만, 두 번째 시집 『그리움 없인 저 별 내 가슴에 닿지 못한다』에서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진다.

하루 동안 나를 태우고 다닌  
나의 말을 지하에 매놓고 나오며 나는 본다  
피곤을 어깨 가득 인 채로 자면서도 발목 풀지 못하는  
저들의 축은한 뒷모습, 평생을 눕지도 못하는 저들의  
피로한 허리에서 새어 나오는 신음 소리  
재빠른 질주에 기대어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흑사시켜 온 것일까

—김완하, 「도마동 · 4-지하 주차장」 일부

위에 인용된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도마동’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안식을 얻는 곳이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별보다 화려한 불빛을 가진 도시 속에서 살고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피로하다. 도시에서의 삶은 ‘재빠른 질주’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질주하는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지 못한다. 오직 앞만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별은 여전히 도시의 하늘 위에서도 빛나고 있으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한다. 별빛은 오직 멈춰선 사람에게만 것들 뿐이다.

아침 입맛을 잃은 사람들 위해서  
 크라운 베이커리 사내는 앞치마 가득 빵을 굽는다  
 밀가루 반죽이 안개처럼 부풀어도  
 그 빵의 아침은 피어나지 않았다  
 (……)  
 그는 아파트 주민의 식탁을 위해 살아간다  
 입맛 없는 이들의 아침으로 빵을 부풀릴 뿐,  
 새벽이 오는 골목으로는 눈길 주지 않는다

—김완하, 「도마동 · 3-크라운 베이커리」 일부

인용된 작품에는 생계를 위해 바쁘게 일하는 베이커리의 사내가 제시된다. 그는 새벽 속에 있으면서도 별을 보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아파트 주민의 식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대전 도마동 빵집 사내의 모습은 우리 시대 가장, 나아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모습을 대표한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소중한 것을 잊고 있는 사람들. 김완하의 도마동 연작시가 가치를 가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편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전은 충청지역 문화·경제·산업의 중심지로, 그 문학공간적 특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 충청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공간이다. 특히 대전에는 이 지역과 별다른 연고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충청 지역을 대표하는 문인들에 관한 기념물들이 많이 건립되어 있다. 중구 보문산 사정공원에 건립된 한용운·김관식·박용래 등의 시비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정생동 도리미마을은 신채호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곳에서 태어나 8살 무렵에 청원군 고두미마을로 이사해서 자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떨어지지만, 이곳은 그의 문학사상이 형성된 원천이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대전은 충청 지역의 대표적인 잡지 《향토(鄕土)》와 동인지 《동백》이 발간된 곳이기도 한데, 정훈·박희선·박용래·이재복·정해봉·송석홍·원영한 등이 이에 참가했다. 유난히 문화의 중앙 집중현상이 심각한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 문학의 정체성을 계승하는 이러한 출판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둘째, 대전·금산은 스쳐지나가는 사람의 공간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경계를 넘어 나가는 사람들과 들어오는 사람들의 공간, 즉 유랑과 정착, 경제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만인산 머들령고개에 위치한 정훈 시비와 신탄진에 위치한 이덕영의 시비 등이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공간이라면, 문화동 연정국악문화회관 광장에 위치한 한성기의 시비와 시인 김완하가 제시한 도마동 등은 다른 공간에서 대전으로 들어와 정착한 사람들의 공간을 표현하고 있다.

머들령고개의 경우는 금산과 대전을 연결하는 통로이자 두 지역의 문학공간을 연결하는 지점이 되는데, 금산 출신의 시인 임영봉이 이러한 통로에 위치한 작가이다. 김숨의 소설도 금산과 대전을 오가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수복 편, 『한국문학 공간과 문화콘텐츠』, 청동거울, 2005.
- 김수복, 『상징의 숲』, 청동거울, 1999.
- 김재관·장두식, 『문학 속의 서울』, 생각의나무, 2007.
-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지도』, 계몽사, 1996.
- 박명용, 『문학과 삶의 언어』, 푸른사상, 2002.
- 정진석, 「한성기의 불행한 생애와 고뇌의 시세계」, 박명용 편, 『한성기시전집』, 푸른사상, 2003.
- 박태일, 『한국 근대시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1999.
- 송백헌, 「충남시단사」, 『진실과 허구』, 민음사, 1989.
- 이대규, 『남도문학기행』, 이와문화사, 1999.
- 이문구, 「박용래 약전」, 박용래, 『먼 바다』, 창작과비평사, 1984.
- 이종근, 『전북문학기행』, 신아출판사, 1997.
- 장일구, 「한국 근대소설의 공간성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1998.
- 장태동, 『서울문학기행』, 미래M&B, 2001.
- 최동호, 『한용운-혁명적 의미와 시적 사랑』, 건국대출판부, 1996.
- 최수웅, 「경상북도 문학공간 연구의 단위지역 구분」, 《한국문화기술》 제1호, 한국문화기술연구소, 2005.
- 최유찬 외, 『토지의 문화지형학』, 소명출판, 2004.
-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충북』 제12권, 돌베개, 1998.
-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 한상철, 「무늬에 이르는 힘」, 《문예시학》 제8권, 1997.